

“조심 또 조심”...특전사 철통 경호 속 빗길 뚫고 무사 도착

르포/ 코로나19 백신 이송 현장

광주 10개 시설·전남 50개 시설
수량·파손 여부 등 체크후 입고
내일까지 초도 물량 모두 확보

코로나 19가 앓아간 일상 회복을 위한 백신이 25일 광주와 전남에도 속속 도착했다. 국내 첫 백신으로 허가받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다. 이중 삼중 보호막으로 둘러싸인 백신은 국내 위탁 생산 공장인 SK바이오사이언스 경북 안동공장에서 출발해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를 거쳐 이날 광주·전남을 포함해 전국에 뿌려졌다. 군과 경찰의 호위를 받고 언론의 집중 조망 아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백신을 받아 든 의료진 등의 얼굴엔 저마다 희망이 샘솟는 듯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광주 광산구청 입구에 백신을 싣은 차량이 경찰과 육군 특전사의 호송을 받으며 도착했다. 물류센터에서 출발이 늦어지면서 당초 도착시간인 8시 30분보다 2시간 가량 늦었지만 얼굴을 찌푸리는 이는 없었다.

특전사 요원이 적색 봉인지를 걷어내고 탐차 냉장고의 문을 열자 백신이 눈에 들어왔다. 방역당국 관계자가 냉장과 안으로 들어가 녹색 보냉상자에 담긴 백신 상자를 들고 나왔다. 모두 700명 분량이다. 백신의 온도유지가 중요한 탓에 방역당국 관계자의 발걸음은 다급함이 묻어났다.

이날 광산구로 할당된 백신이 냉동 탐차에서 보건소로 옮겨지자마자 특전사 요원은 곧바로 탐차 냉장과 문을 닫고 봉인지를 부착한 뒤 다음 배송지로 떠났다.

광산구에 배정된 백신은 청사 내부를 지나 보건소 접점실로 옮겨진 뒤에야 제대로 눈에 들어왔다. 10바이알(병) 씩 된 10개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상자 7개가 담겨있었다. 백신은 1바이알(병) 당

10회 용량으로, 즉 10명 분 백신을 추출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백신의 수량과 파손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백신에 문제는 없었고, 보건소 관계자는 영상 6도로 유지되고 있는 냉장고로 백신을 옮겼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상 2-8도의 온도가 유지돼야 한다. 백신의 모든 이동 과정은 조심스러웠다. 이날 광주에는 5개 구청 보건소와 요양병원 5개 등 모두 10개 시설에 3200명 분의 백신이 이송됐다. 이어 26일 백신이 추가로 광주로 이송되면 당초 계획된 초도 물량 1만4200명 분의 AZ백신 모두 확보하게 된다.

같은 날 오후 늦게 화이이 백신도 광주로 옮겨진다. 코로나 19 전담병원 의료진 등에게 접종할 백신으로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된 조선대병원이 도착지다. 조선대병원 측은 “백신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3-1절 연휴가 시작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3~4일 정도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해서 광주에서는 다음 달 3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남에도 이날 백신 첫 물량이 도내 보건소, 요양병원 등 50개소에 도착했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 일제히 뿌려지는 AZ백신이다. 출발시각과 교통, 기상 상황 등 배송 과정에서 유동적이어서 시설별 도착 시각은 저마다 조금씩 달랐다.

이날 시군 보건소 22개소, 요양병원 28개소 등 50개소에 첫 물량이 도착한 데 이어 26일 요양병원 65개소에 도착하는 물량을 합치게 되면 초도 물량 2만1900명분이 모두 도착하게 된다. 26일에는 코로나 19 치료 의료진 등이 접종할 백신이 도착한다. 목포·순천·강진의료원, 국립나주병원, 화산 전남대병원, 광양우리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7개 시설 의료진 등 종사자 890명이 맞게 될 백신이다.

중앙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기 이천 물류센터의 AZ백신은 이날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 약 1900곳에 순차적으로 배송됐다. 2월에 전국에 공급될 AZ백신 총량은 78만5000명분(157만도스)으로 지역에 따라 최대 3일에 걸쳐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수송이 시작된 25일 광주 광산구청에 백신을 싣은 수송 트럭이 도착해 수송 요원이 군과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초저온 냉동고에 있는 광산구 보건소로 향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찾은 우원식 “지역현안 3대 법안 3월 국회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우원식의 의원은 25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전남 3대 현안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아특별)·한국에너지공과대학·여순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3대 현안 법안이 이제는 분명한 결과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전공대 특별법에 대해 “야당은 에너지 공대를 돈 먹는 하마로 여기나 세계적인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추세에 비춰볼 때 오히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음을 모르는 것이다”며 “내년 3월 개교 일정을 고



려하면 최소한 3월 내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과 관련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만 개관 후 1000만명이 다 나갈 정도로 문화 수도 광주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업무 혼란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정상적인 국가 기관으로의 전환을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가폭력에 의한 아픈 역사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4·3특별법이 소위 문턱을 넘은 만큼 결을 맞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AI(인공지능) 광주 비전을 실현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면서 “정부 예산 확대 요청과 인공지능 유망 기업들이 광주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핵심 현안인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범정부 협의회를 구성해 추진하고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홍영표 의원과 차기 당권 경쟁을 벌이는 우 의원은 최근 광주와 전남을 찾아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대권 적합도, 이재명 28%·이낙연 11%·윤석열 7%

4개기관 조사...민주 35% 국힘 20%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강 독주체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차기 대권 지지를 격치는 더 벌어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가 28%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 대표는 11%, 윤석열 검찰총장은 7%였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 유승민 전 의원(2%), 정세균 국무총리(2%), 심상정 정의당 의원(2%), 오세훈 전 서울시장(1%), 원희룡 제주지사(1%),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1%)이 뒤를 이었다.

1주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 지사는 1%포인트

상승했고, 이 대표는 1%포인트 하락했다. 윤 총장도 1%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이 지사를 뽑은 응답자가 49%, 이 대표를 뽑은 사람이 23%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 국민의힘 20%,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2% 순이었다.

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는 민주당 30%, 국민의힘 23%였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7%의 지지를 받았다.

4월 재보궐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국정안 정론이 43%, 정권심판론이 40%였지만 선거를 앞둔 서울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이 각각 39%대 48%, 37%대 45%로 정권심판론이 더 높았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 30.1%를 기록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연합뉴스

홍영표 “광주형 일자리 성공·군공항 해결에 힘 모으겠다”

“광주형일자리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광주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홍영표(4선·인천 부평을) 국회의원은 25일 광주일보와 만나 “광주를 비롯해 전국의 군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홍 의원은 특히 “기부대 양여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 결국 기존 군 부지에 아파트를 짓지 않고서는 이전 비용을 만들어 낼 수 없는 방식”이라면서 “군부대가 있어서 지역주민이 피해를 본 만큼 보상차원에서 무언가 해주어야 하는



데 기부대 양여 방식은 국방부가 땅장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 군공항만 12개가 있고, 민간 공항은 22개다”면서 “좁은 국토에 너무 많은 군공항과 공항이 있어 인위적인 군공항 이전

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군공항을 통합해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군공항이 이전하면 군인과 가족 5000여명이 함께 이주하게 된다”면서 “전국 혁신도시

에는 직원만 이주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군부대는 특성상 가족 모두가 상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도 애를 먹는 지자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지 않았다. 홍 의원은 “광주형일자리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일자리 모델이며,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현재 국내 상생형 일자리는 대부분 광주형 모델을 본받고 있다. 광주형 모델이 성공을 해야 다른 곳도 더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광주형 모델의 성공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